

# 윤희근 경찰청장, “마약범죄와 전면전”...대규모 특진 걸었다

“불퇴전 각오...‘마약 음료’ 배후 끝까지 추적”  
합동단속추진단 운영...“檢과 수사 상황 공유”  
“마약 조직 일망타진 땐 해당 팀 전체 특진”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대규모 특진을 약속하면서 조직 내부에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총력전을 지시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경찰은 더 이상 마약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그간의 노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나아가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수행함에 있어 조직적인 마약 제조·유통사범을 일망타진하는 경우 해당 팀 전체를 특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첩보제공·예방·홍보활동 우수사례들도 특진·포상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이후 관련 범죄 총력 대응을 지시하면서 정부는 지난 11일 검찰·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했다.  
윤 청장은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 퍼진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의 미래 주역인 학생들을 노렸다는 점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 같은 범죄”라며 “배후 세력을 끝까지 추적 검거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국수본부장, 시도청은 각 시도경찰청장이 직접 책임자를 맡는 마약류 합동단속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

합동단속추진단은 사이버·금융·여성청소년 등 수사기능을 동원한 마약류 범죄 수사와 함께 지역경찰·생활질서·여청 등을 통한 예방 및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다크웹 등 인터넷 기반 마약 유통사범 단속을 위해 사이버 수사 전문가들도 투입된다.  
법정부 마약범죄 특수분과 마약수사 실무체를 중심으로한 공조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검찰과는 수사초기 단계부터 수사사항을 공유하고, 관세청과는 밀반입 관련 정보공유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며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는 의약품 마약류 오남용 방지대책과 재활 치료 연계 등을 협의하고, 교육부 및 지자체와는 청소년 예방교육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마약문제는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핵심현안”이



라며 “경찰은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공동체를 마련하기 위해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이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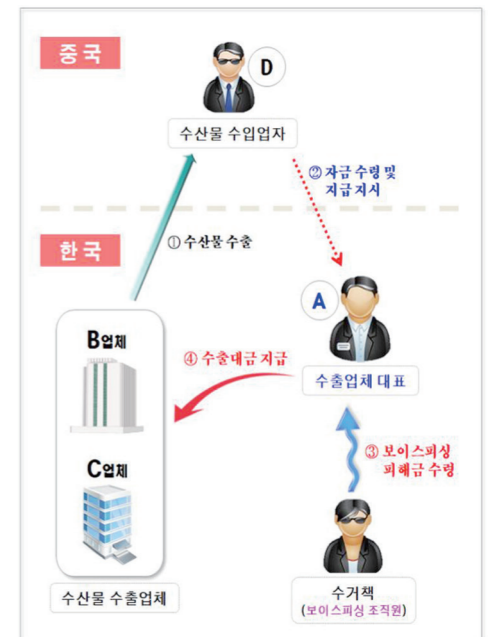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초청 앞 기자회견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12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보이스피싱 검은돈, 수산물 대금으로 ‘세탁’

### 인천세관,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금을 수출대금으로 세탁하는데 연루된 수출업자가 세관 당국에 검거됐다.  
12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금을 수출대금으로 세탁하는데 관여한 40대 A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4월께 중국 수입업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약 4600만원을 국내에서 수거책에게 현금으로 받았다. A씨는 이 자금을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에게 수출대금으로 전달하면서 대가금으로 약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관련 정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A씨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미 받은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수익이 A씨를 거쳐 수출대금으로 국내에서 결제된 점이 확인됐다. 따라서 인천세관은 A씨를 속칭 환치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A씨가 운영하는 수출법인인 ‘수출대금



을 외국환 은행이 아닌 제3자로부터 국내에서 현금으로 수령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 미이행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수산물 수출업체 2곳도 같은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